강원도 지역의 모음조화

- 변화의 진행과 방향에 대하여 -

김 유 겸 *

1. 들어가며
2. 기존 논의
  1) 강원도 지역의 모음조화 연구 현황
  2) 영동과 영서의 전통적인 방언 구획, 남과 북으로의 구획 가능성
3. 어휘확산가설의 적용
4. 『한국방언자료집』에서의 강원도 모음조화
  1) 폐음절 어간말 /ㅗ/ 환경
  2) 폐음절 어간말 /ㅏ/ 환경
  3) 다음절 어간말 /ㅡ/ 환경
  4) 어간말 /ㅐ/ 환경
  5) 다음절 어간말 /ㅜ/ 환경
  6) 남에서 북으로의 점진적 변화
5. 마치며

1. 들어가며

진행 중인 언어 변이는 일상 대화 속에서도 종종 드러난다. '그게 맞아'라 대답했다가도 어느 때에는 '이것 좀 받어'라 말하기도 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가 아닐까. 현대국어에서 더 이상 규칙이라 부를 수 없는 모음조화는 전국적으로 '아〉어'계 어미로 변해가는 경향을 띠지만, 지역에 따라 그리고 구체적인 환경에 따라 너무나 복잡한 실현 양상이 관찰되는 흥미로운 항목이다.

*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수료.

본 연구는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의『한국방언자료집』에 수록된 자료를 대상으로 강원도 지역의 모음조화 양상을 살펴보는 것을 일차적인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를 통해 강원도 내 지역 언어들의 연관성 및 변화 진행의 방향성을 파악하려 시도할 것이다. 다시 말해 비슷한 시기에 수집된 공시적 자료를 가지고 진행 중인 언어 변화를 논하려는 시도이다.

특정 현상의 변화 과정이 언어 전체 변화의 방향성을 대변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현재까지도 변화가 완료되지 않은 모음조화의 확산 경로를 통해 강원도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일반적인 언어 변화의 방향성도 가늠해볼 수 있을 것이다. 과거 필자의 졸고에서 이와 비슷한 시도를 했었지만 당시 다루었던 지역 및 자료의 한계로 인해 어렴풋하게 남에서 북으로의 방향성만을 짐작했을 뿐 보다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못했다. 이 연구는 과거의 짐작을 확인하기 위한 보완 작업으로서의 역할을 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기존 논의

1) 강원도 지역의 모음조화 연구 현황

강원도 지역어를 대상으로 한 방언 연구는 그간의 많은 선행 연구들을 통해 차곡차곡 자료가 쌓여 있지만 모음조화만을 살펴본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대부분의 모음조화 연구는 지역 음운론의 일부분으로 다루어진 상황이다. 본고에서는 모음조화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진행하려 하기에 우선 기존의 강원도 지역어 연구에서 살펴본 모음조화 자료만을 정리하려 한다.

박용대(2011)의 고성 지역 음운론 연구에서는 단음절 어간 환경에서 어간 모음 /ㅏ, ㅗ/를 제외한 나머지 환경에서 -어계 어미를 선택하는 정연한 모습을 보이는 반면, 다음절 어간에서는 -아/어계 어미의 결합이 동일 환경에서 어휘에 따라 병존하는 등 혼란스러운 양상이라 하였다. 하지만 이 정도의 병존은 강원도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아계 어미 결합 환경이 비교적 유지되는 지역에 해당한다.

강릉 지역의 모음조화는 김옥영(1998)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릉 지역은 대부분의 모음이 -어계 어미와 결합하며 -아계 어미와 결합하는 환경은 어간말 모음 /ㅗ/뿐이라고 한다. /ㅗ/ 환경에서도 '곪다, 옮다, 쫓다' 등 소수의 예에서 간혹 -어계 어미 결합형이 확인되므로 시기의 차이는 있지만 고성 지역보다 -어계 어미 결합형의 세력이 두드러진다. 특히 두 연구 모두 당시 80대 제보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것을 감안한다면 박용대(2011)보다 약 10년 앞서 조사된 강릉 지역이 고성보다 오히려 -어계 어미 결합형 확산 속도가 빠르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1)]

김봉국(2001)은 동일한 음운론적 환경이더라도 어미의 문법적인 기능에 따라 -아/어계 어미 결합 양상이 달라진다는 것을 밝혔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종결 어미와 그 외 어미의 교체 양상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 강릉과 삼척 두 지역은 어간말 모음이 /ㅜ/인 환경에서 지역간 차이를 보이는데, 김옥영(1998)에서 보고한 대로 강릉 지역은 대체로 -어계 어미를 선택하는 반면 삼척 지역은 -아계 어미가 결합한다고 보고하였다.[2)]

김봉국(2002)에서는 보다 지역을 넓혀 강릉, 삼척에 더해 정선과 원주 지역의 모음조화 양상을 찾아볼 수 있다. 먼저 종결 어미 결합에서는 '-아'를 선택했던 강릉, 삼척과는 달리 두 지역과 떨어진 위치의 원주는 고정적으로 '-어'를 선택하고 두 지역과 인접한 정선 지역은 '먹어~먹아', '막어~막아' 등 '-아/어'가 병존한다. 정선에서 등장하는 병존형은 종결 어미로 '-어'를 선택하는 나머지 지역들과 '-아'를 선택하는 강릉 및 삼척 지역 사이 방언 접촉의 결과물로 해석이 가

1) 전국적으로 기존 '-아' 계열이 결합하던 환경이 '-어' 계열로 통합되어 가는 것을 고려했을 때 상대적으로 남쪽에 위치한 강릉이 고성보다 이른 시기부터 변화의 적용을 받았다는 점은 강원도 지역의 모음조화 변화가 남에서부터 시작되어 점차 북상했음을 짐작케 한다. 이는 본고 전체에서 주장하는 변화 양상과 일치하는 모습으로 자세한 내용은 후술하도록 하겠다.

2) 김봉국(2001)에서는 강릉 지역에서 어간말 모음 /아/일 때 -아계 어미 결합형이 나타난다고 하여 김옥영(1998)과 상반되는 결과를 제시하였지만 이는 제보자 개인어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조사 환경의 차이에 따른 어쩔 수 없는 결과일 것이다. 그렇다 할지라도 김봉국(2001)의 강릉 지역에서 '좋워두, 좋워요'가 발견되는 등 해당 지역에서 -어계 어미의 세력이 강력하게 작용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능하다.

어미의 문법 기능에 따라 모음조화의 교체가 달라지는 특징이 강원도 전지역에서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강릉, 삼척 지역 등 강원 동남부 일부 지역에 국한되어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점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강릉과 삼척에서 어미의 문법 기능이 결합에 영향을 끼친다면, 정선 지역은 어간의 규칙/불규칙 활용 여부가 모음조화에 영향을 끼친다. 구체적으로 ㅂ 불규칙 어간은 모두 -아계 어미와 결합하여(예. 미왔어) 규칙 활용하는 어간말 /ㅜ/ 환경에서 -어계 어미와 결합하는 모습과 차이를 보인다.[3)]

이병근, 김봉국(2002)에서 살펴본 정선 지역 연구에서도 정선 지역의 모음조화 양상이 전반적으로 삼척 지역과 유사한 면이 많다고 이야기한다. 유독 -아계 어미 결합 세력이 강하게 나타나는 삼척 지역의 영향으로 타 지역이 '-아〉-어'의 변화 방향을 가질 때 정선 지역은 '-어〉-아'의 반대 방향 변화를 설정할 만한 예들이 확인된다. 이후 손웅일(2006)에서 정선 지역어를 다시 조사했는데, 이에 따르면 폐음절의 어간말 /ㅐ, ㅏ, ㅗ/ 환경에서 -아/어계 어미가 모두 확인되는 혼동스러운 양상이다. 이는 -어계 어미쪽으로의 일련의 변화 추이와 -아계 어미 세력을 고수하는 삼척 지역 사이에 낀 정선 지역의 방언 접촉에 따른 결과로 해석이 가능할 듯하다.

김봉국(2007)은 강원도 태백 지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 내용 중 모음조화에 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다른 음운 현상의 예로 제시한 자료들을 통해 모음조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중 특이한 점이라면 어간말 모음이 /ㅜ/인 경우 말음절 초성 자음이 없을 때에는 '배와, 도와, 더와'처럼 규칙/불규칙 활용에 관계 없이 -아계 어미 결합형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처럼 지역에 따라 어느 지역은 규칙과 불규칙 활용, 어느 지역은 어간말 종성 유무 등 서로 다른 조건으로 분화되어 -어/아계 결합이 달라지는 모습은 결과적으로 강원도 지역의

3) 참고로 삼척 지역 역시 ㅂ 불규칙 어간은 -아계 어미와 결합하는 경향이 강한 반면 강릉 지역은 -어계 어미와 결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삼척은 강릉과는 종결 어미 환경에서의 모음조화 결과를 공유하고 정선과는 ㅂ 불규칙 환경에서의 결과를 공유하여 지역적인 차이를 보인다. 이는 유독 -아 계열 세력이 강한 삼척 지역을 중심으로 인근 지역들이 서로 다른 환경에서 -아 결합형을 수용하여 발생한 차이로 보인다.

모음조화 양상이 굉장히 복잡하게 분화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한 지역에 대한 실제시 자료 비교 작업을 통해 해당 지역의 언어 변화 추이를 확인할 수 있다. 김유겸(2012)는 인제 지역을 대상으로 직접 조사 자료와 방언 자료집의 자료, 2000년대에 진행한 국립국어원의 자료들을 비교하여 인근 지역과의 접촉 방언을 살핀 연구이다. 인제 지역은 과거 어간말 모음 /ㅏ, ㅐ/ 환경에서 -아계 어미를 선택하는 모습에 비해 현재 많은 부분 -어계 어미에게 자리를 빼앗긴 것이 확인되었다. 뿐만 아니라 강원도 전 지역을 놓고 살펴보았을 때 전반적으로 -어계 어미가 남에서 북으로 세력을 확장하는 방향성을 가진다고 주장하였다.

윤혜영(2001)에서 밝힌 홍천 지역 상황도 인제 지역과 크게 다르지 않다. 어간말 /ㅏ, ㅗ/ 환경에서 -아계 어미가 대체로 결합하지만 자연 발화 상황에서의 어간말 /ㅏ/에서는 간헐적으로 -어계 어미 결합형이 함께 등장하여 변이가 진행 중임을 암시했다. 이러한 가운데 어간말 /ㅐ/ 환경은 변이의 진행 상황이 한층 진척되어 -아/어계 결합 경향을 제시할 수 없을 만큼 불규칙한 결합 양상이 확인되었다. 참고로 방언자료집에 수록된 자료에 따르면 홍천 지역은 과거 어간말 /ㅏ,ㅐ/ 환경에서 -아계 어미와 결합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Ex.낮아, 맺아 등). 따라서 홍천 지역 역시 강원도 전반에 걸친 변화의 방향과 동일하게 -어계 어미 쪽으로 변화하는 중이라 하겠다.

살펴본 바와 같이 강원도의 모음조화는 삼척을 비롯한 극히 소수의 지역을 제외하면 모음조화의 일반적인 변화를 따라 대체로 '-아>-어'로의 변화를 겪는 중이다. 하지만 세부적으로는 환경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실현되고, 때문에 지역 특수적인 분화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 확인된다. 2000년대 진행된 연구들로 시기를 좁히더라도 강원도 남부와 북부, 세부적으로는 지역에 따라 적어도 한두 가지 정도는 특기할 만한 차이가 확인되는 실정이다.[4)]

따라서 강원도 지역에서 모음조화라는 현상이 비교적 최근까지 매우 능동적으

4) 서로 다른 연구의 자료들을 가져와서 비교하다보니 시기적으로나 조사된 어휘 목록으로나 균질적이지 못해 직접적인 비교 작업에는 한계가 있지만 적어도 강원도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모음조화를 확인할 가치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기에는 충분하다.

로 변화하고, 인접한 지역들끼리 서로 영향을 미친다 할 것이다. 이제는 이러한 변화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 어느 방향으로 뻗어나갔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 이를 통해 나아가 강원도 지역의 언어 확산 방향까지도 추론해 볼 차례이다.

2) 영동과 영서의 전통적인 방언 구획, 남과 북으로의 구획 가능성

방언 연구는 사용하는 언어의 같고 다름을 파악하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 방언학자들은 방언 자료들을 수집 및 분석한 뒤 이를 토대로 적절히 해당 방언들을 구획했을 때 유의미한 방언지도가 그려지기를 기대한다. 강원도 지역은 이익섭(1981) 이후 크게 영동과 영서로의 구획을 이견 없이 받아들여 왔다.

전통적으로 영서 방언은 영동 방언에 비해 소위 강원도 사투리라 불리는 방언적인 요소들이 두드러지게 드러나지 않는 방언으로 인식되었다. 이익섭(1981)에서 영동 방언을 세부 방언권들로 나누었던 것도 해당 지역들이 상대적으로 뚜렷한 방언색을 가졌기 때문이다. 지리적으로는 영서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영동 방언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것을 고려하여 영동 방언권으로 분류한 서남영동방언권을 보더라도 순수 강원 방언의 특색은 영동 방언에 집중되어 있다는 가정 하에 방언 구획을 진행했다 하겠다.

이러한 가운데 노명희(2005)는 영서 지역에 초점을 맞추어 방언 분화를 논의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가질 만한 연구이다. 화천, 춘천, 홍천, 원주, 횡성, 평창 지역을 대상으로 방언 비교를 진행한 결과 다른 지역에 비해 평창이 영동 방언의 특징을 강하게 보이는바, 평창 지역어를 영동과 영서의 전이지역적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 기타 영서 지역들과 구분하였다. 이는 앞서 이익섭(1981, 1987) 등에서도 평창, 영월, 정선 등 영서 남부 지역을 영동 방언권에 포함시킨 것과도 연관되는 보고이다.

무엇보다 영서 방언을 남과 북으로 구획할 만한 자료들을 제시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언제나 그렇듯 방언 구획은 어떠한 자료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경계선이 달라지므로 어느 지역에 선을 그을지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 아무리 많은 어휘를 대상으로 굵은 등어선을 찾는다 하여도 연구자 주관의 결과임은 부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성훈(2018)은 네트워크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보다 객관적으로 강원도 지역의 방언 구획을 논의하였다.

정성훈(2018)에서는『한국방언자료집』에 수록된 어휘 자료를 활용하여 강원도 하위 지역과 어휘 두 개의 층위로 이루어진 이원 네트워크를 구축, 이를 이용하여 지역 방언 사이 공통점을 기반으로 한 강원도 방언 구획을 제시하였다. 네트워크 분석의 장점은 각 지역별 연결 강도 및 거리를 수치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평균거리 연결방법을 통해 수치를 기준으로 유사한 어휘를 사용하는 지역끼리 그룹화하여 연구자의 주관이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존의 방언 구획 방식보다 객관적인 방언 구획 작업을 가능케 한다.

그 결과로 구획된 강원도의 하위 방언권은 전통적으로 영동과 영서 방언으로 대방언권을 설정하는 것과는 달리 평창 지역을 중심으로 한 남부 방언과 그 위쪽의 북부 방언으로 양분되는 모양새이다. 세부적으로 남부 방언은 강원도 타 지역 방언과 많은 차이를 보이는 삼척 지역과 나머지 지역으로 구획되고, 북부 방언은 해안가에 위치한 고성, 양양에 기존 영서 방언으로 취급한 인제 지역이 하나의 방언권으로 묶여서 나머지 지역들과 구분된다.

순수 어휘만을 기준으로 구획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지만 기존 강원도 지역 언어에 대한 통념과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성과이다. 특히 노명희(2005)에서 언급되었던 남북으로의 구획을 보다 구체적으로 밝혔다는 점도 아직 강원도 지역의 언어 구획에 살펴볼 부분들이 많이 남았다는 사실을 다시금 인지시켜준다. 그리고 연구 결과 평창 지역어가 강원도 전체 지역과 연결 강도의 중심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만약 이를 평창 지역어가 강원도 전체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방언일 가능성으로 이해한다면 강원도의 언어 변화가 평창을 중심으로 점차 확산된다는 가설로도 이어질 수 있다.

남은 문제는 만약 가설처럼 강원도의 언어 변화, 이 글에서 초점을 맞춘 모음조화의 변화가 평창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중이라면 이를 어떠한 방법으로 증명할 것이냐이다.[5] 이론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은 현재 사용되는 강원도 전 지역의

5) 본고에서는 강원도 지역의 언어 변화 전체가 동일한 방향성과 과정을 거쳐서 동일한 속도로 확산된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방언 변화의 방향과 속도는 사회적인 요소와 큰 연관을 가진다. 특정 시기 사회 문화적 중심지가 어딘지, 지역 주민들의 생활권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에 따라 변화 과정은 달라질 것이다. 현대 시기 평창은 영동 고속도로

언어 자료를 다시 수집하여 『한국방언자료집』의 자료와 실제시 비교를 진행하는 것이지만 이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른다. 때문에 본고는 어휘확산가설을 활용하여 강원도 지역의 언어 변화를 간접적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3. 어휘확산가설의 적용

신문법학파가 주장했던 규칙성 이론은 동일한 환경에서 예외 없이 규칙적으로 음성 변화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이를 따른다면 규칙을 적용 받을 만한 동일 환경의 단어들은 동시에 해당 규칙을 적용받아 변화해야만 한다. 하지만 방언학을 공부한 사람이라면 규칙성 이론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이론이라 여길 수밖에 없다. 굳이 지역을 옮기지 않아도 한 지역 내에서 제보자에 따라 다수의 변이형들이 쏟아져나오는 경험은 방언 조사자라면 한 번 쯤은 겪었으리라 생각한다.

Wang(1969)의 어휘확산가설은 실제로 수집되는 자료들의 모습처럼 다양한 변이형들의 공존을 자연스럽게 설명해준다. 어휘확산가설에서 음성 변화는 어휘 단위를 기준으로 점진적으로 적용되며 어휘와 환경에 따라 변화의 속도가 달라진다. 가령 특정 음운 변화가 적용되는 동일 환경이더라도 어휘 A는 변화를 적용받은 반면 어휘 B는 아직 변화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또한 변화는 하루 아침에 완료되는 것이 아니므로 진행하는 동안에는 보수형과 개신형이 병존한다.

어휘확산가설은 광범위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 동시대적 자료를 해석하는 데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이다. 가설대로라면 모음조화 변화의 큰 틀이라 할 '아〉어' 로의 변화는 동일 환경이더라도 어휘에 따라 적용되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아〉어' 변화가 보다 많이 진행된 지역은 보다 덜 진행된 지역에 비해 '아〉

개통 이후 서울 및 경기권과 강원도를 연결하는 교통권의 한복판에 위치하고, 이에 이어지는 6번, 31번, 42번 국도 등 강원도 전 지역과 원활한 교류가 가능하여 외부 지역 방언의 유입 및 확산에 용이한 위치에 자리잡고 있다. 뿐만 아니라 스키장, 동계 올림픽 유치 등 관광지로도 유명하여 외부인들과의 접촉이 잦은 만큼 언어 변화 발생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어' 변화가 적용된 어휘의 수가 적을 것이라 예상이 가능하다. 따라서 공시적 자료에서 동일 환경 속 복수의 어휘들을 대상으로 그 속에서 변화의 정도를 파악함으로써 해당 현상의 통시적 변화 양상을 짐작할 수 있게 된다.[6)]

이러한 방식은 이미 김한별(2012) 등에서도 활용된 바 있다. 김한별(2012)에서는 '사회언어학적, 어휘적, 언어적, 공간적 확산 중 공간적 확산은 대개 나머지 확산의 반영으로 볼 수 있다'는 Chambers & Trudgill(1980:182)을 기반으로 '개별 화자의 어휘부 내에서 먼저 개신을 입은 어휘가 지리적으로도 먼저 확산된다'는 전제 하에(김한별 2012:7) ㅂ 약화 및 ㅸ의 통시적 변화를 문헌 자료를 활용하여 살펴보았다. 결론에서 ㅂ 약화 규칙은 단어에 따라 점진적으로 확산된 것, 그리고 확산 속도의 차이가 환경에 따라 달라진 것임을 확인함으로써 어휘 확산가설을 다시 한 번 증명해 보였다.

구체적인 현상, 그리고 연구에 활용한 문헌 자료의 시간차가 있기는 하지만 어떠한 현상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는 방식은 본고도 김한별(2012)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론적으로 변화가 완료된 지역은 해당 환경의 모든 어휘에서 예외 없이 변화를 입은 형태가 나타날 것이다. 기존 -아계 어미가 결합할 환경에서 -어계 어미 결합형만 나타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변화가 진행 중인 지역에서는 -아/어계 어미 결합형이 모두 나타날 텐데, 이 경우에도 변화의 정도에 따라 -어계 어미 결합형의 등장 비율에서 지역간 차이를 드러낼 것이라 예상된다.

따라서 이어지는 논의에서는『한국방언자료집』에 수록된 강원도 지역의 모음조화 적용 어휘들을 수집한 뒤 이를 어간말 모음을 기준으로 환경을 구분하여 해당 환경에서의 -아/어계 어미 선택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개별 어휘를 하나의 토큰으로 설정하여 이를 토대로 -아/어계 어미 선택 비율을 수치화한다.[7)]

---

6) 연구자에 따라 어휘와 음성의 변화에 대한 해석에서 차이가 있다. Wang(1969)는 음 변화가 어휘적으로는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반면 음성적으로는 급진적으로 진행된다고 보았다. 이와 달리 Trudgill(1986)에서는 음 변화의 경우 어휘적으로도, 음성적으로도 점진적이라고 주장한다.

7) 이후의 표에 사용되는 표기 정보는 다음과 같다. 각 군마다 적힌 수치는 해당 환경에서의 -아계 어미 결합률을 백분율로 표기한 것이다. 100~70(%)는 -아계 어미 결합 우세 지역으로 빨간색으로 표시하고 69~40(%)는 '-아/어'계 어미 결합 경쟁 지역으로 노란색으로 표시했다. 나머지 39~0(%)는 파란색으로 -어계 어미 결합 우세 지역임을 나타낸다.

4. 『한국방언자료집』에서의 강원도 모음조화[8)]

1) 폐음절 어간말 /ㅗ/ 환경[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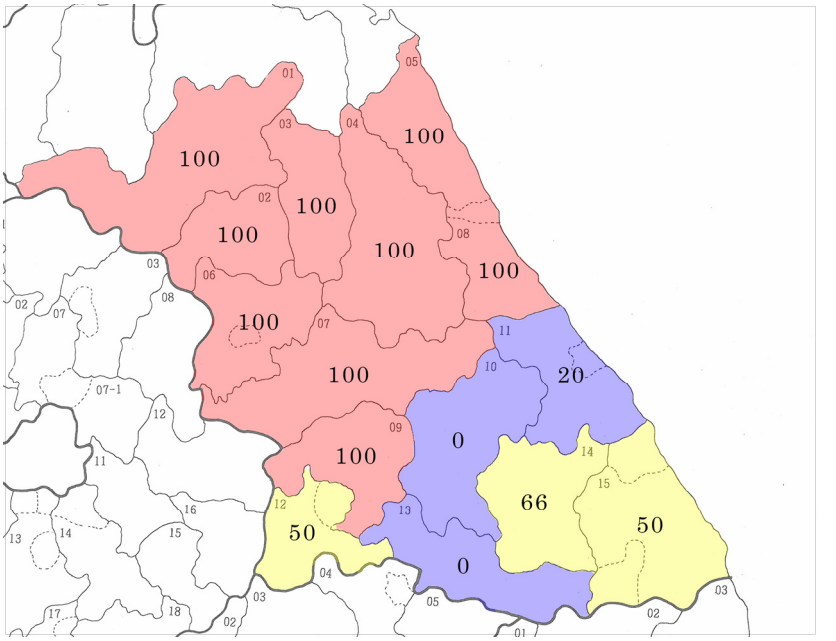
현대국어에서 모음조화가 더 이상 규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해체되었다고 하지만 어간말 모음으로 /ㅗ/를 가지는 어간 뒤에서는 여전히 -아계 어미 결합이 그 힘을 강력하게 유지하는 중이다. 반대로 따져보면 만약 어간말 모음으로 /ㅗ/를 가지는 어간 뒤에서도 -어계 어미가 결합하는 지역은 -아계 어미가 설 자리가 사라졌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자료집에 따르면 어간말 환경이 개음절일 경우 평창을 제외한 모든 지역들이 여전히 -아계 어미를 유지함으로써 다른 환경들과는 달리 -아계 어미의 결합을 대체로 온전히 지켜냈다.

하지만 폐음절 환경은 이와는 다른 양상으로 〈그림 1〉에서처럼 횡성과 강릉을 기준으로 이를 포함한 위쪽 지역들은 개음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해당 환경의 모든 단어들이 예외 없이 -아계 어미를 유지하지만, 그 아래 지역들은 -아/어계 어미가 병존하거나 혹은 모두 -어계 어미와 결합했다. 특히 평창과 영월은 예외 없이 -어계 어미가 결합하고 있어 강원도 지역 내 -어계 어미와의 결합력이 가장 강한 지역으로 꼽을 수 있다. 지도로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평창은 개음절 환경에서도 간헐적으로 -어계 어미와 결합하는 모습을 보인바, 적어도 어간말 모음 /ㅗ/ 뒤의 환경에서만큼은 강원도 지역 중 -어계 어미의 영향력이 가장 큰 지역이라 하겠다.

---

8) 자료의 수집 과정에서 각 모음에 따라, 동일 모음 하에서도 하위 환경으로 어간말 종성의 유무에 따라 혹은 규칙 혹은 불규칙 활용에 따라 어휘를 구분하여 지역간 결합 양상을 확인하였다. 본고에서 앞으로 제시하는 환경은 모든 환경에서의 결과를 제시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 필자가 확인한 환경별 결합 양상 중 지역간 차이가 유의미하게 드러나는 것을 선별한 것이다. 자료는 -어계 어미의 세력이 점차 지역적 확산을 일으키는 모습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현대국어에서 -아계 어미와의 결합을 강하게 유지하는 어간말 /ㅗ/부터 점차 -아계 어미 결합 세력이 약해지는 순으로 제시하였다.

9) 해당 환경에 포함되는 어간은 다음과 같다. '내쫓-, 높-, 꽂-, 옮-, 곪-, 놓-, 좋-'. '꽂-'의 경우 자료집에 연결어미와 명령형 종결어미가 채집되어 있는데 어미에 따라 -아/어계 결합에 차이를 보여 각각을 개별 토큰으로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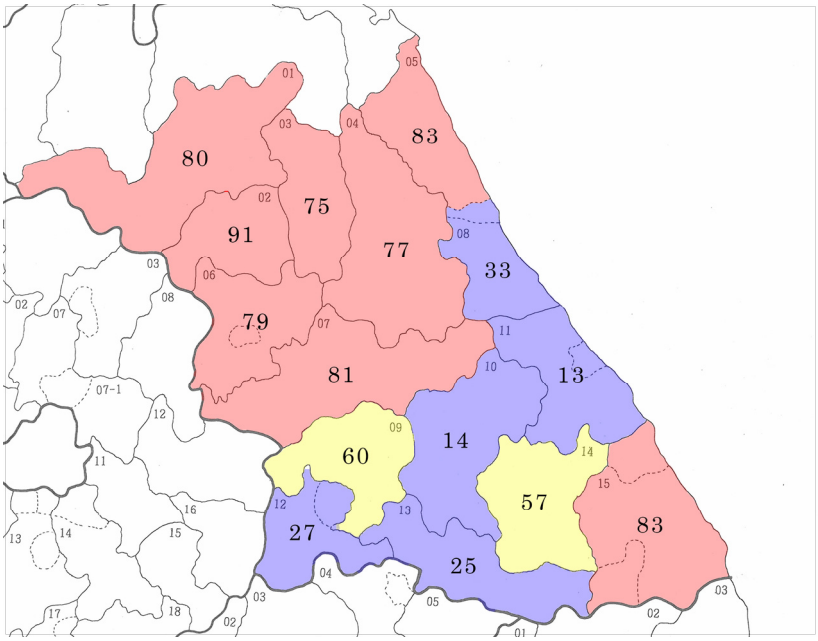


〈그림 1〉 폐음절 어간말 /ㅗ/ 뒤 -아계 어미 결합률

2) 폐음절 어간말 /ㅏ/ 환경[10)]

다음으로 살펴볼 환경은 어간말 모음 /ㅗ/ 환경과 함께 현대 국어에서 -아계 어미가 결합하기 쉬운 환경인 어간말 모음 /ㅏ/의 경우이다. /ㅗ/만큼은 아니지만 /ㅏ/ 환경 역시 전국적으로 -아계 어미와 결합하는 비율이 여전히 높다. 다만 이미 변화가 많이 진척된 상황이기에 개별 화자의 발화에서 일률적으로 어느 한 계열의 어미만 사용하는 경우를 찾는 것이 더 어려울 정도로 -아계와 -어계 어미의 병존이 잦은 편이다.

10) 해당 환경에 포함되는 어간은 다음과 같다. '작-, 같-, 닦-, 맡-, 말-, 쌓-, 빻-, 본받-, 잡-, 알-, 감-, 살-, 잡-, 깎-, 밟-, 짧-, 많-, 맑-, 밝-, 낡-, 닮-, 삶-, 핥-, 앉-, 앓-'. 하나의 어간에 대해 복수의 -아/어계 어미 결합형이 수록된 경우도 있었지만 -아/어계 결합에 차이를 보이지 않아 이들을 묶어 하나의 토큰으로 사용하였다. 평창, 강릉, 원주, 영월, 삼척의 경우 표준어 '뒤집-'이 '뒤잡-' 또는 '두잡-'으로 실현되어 토큰에 포함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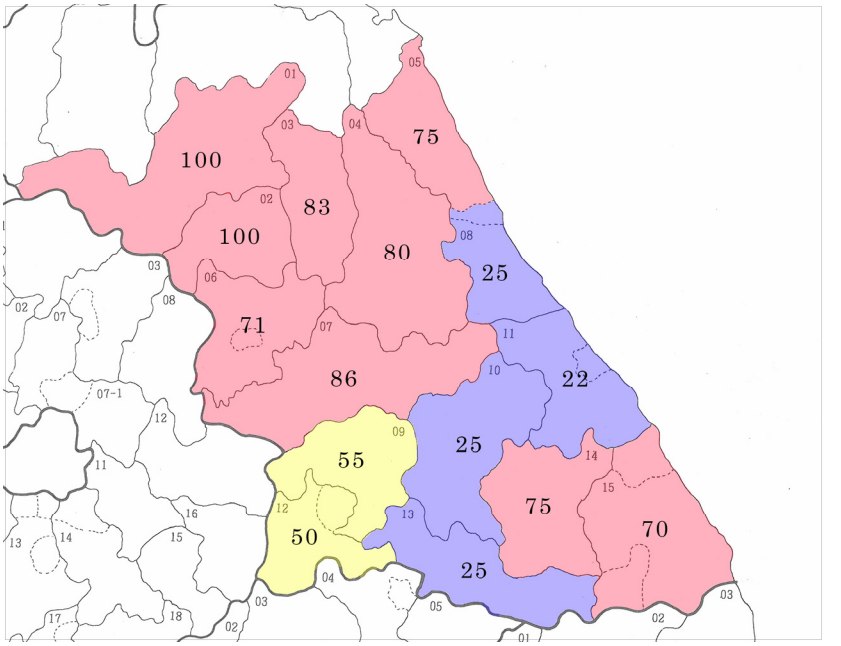
〈그림 2〉 폐음절 어간말 /ㅏ/ 뒤 -아계 어미 결합률

자료집의 단어들 역시 이를 증명하듯 강원도 모든 지역에서 -아/어계 어미가 병존한다. 다만 지역에 따라 -아계와 -어계 결합 비율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앞서 어간말 폐음절 /ㅗ/ 환경에서 -어계 어미와 결합하던 평창, 강릉, 영월에 더하여 윗지역인 원주와 양양까지는 -어계 어미와의 결합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나머지 지역들은 -아계 어미를 더 선호하는데 -어계 어미 선호 지역들에서 멀어질수록 -아계 어미 결합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아 -어계 어미 결합형이 어휘를 통해 점진적으로 강원도 지역에 확산 중이라 짐작된다. 북으로는 화천, 남으로는 삼척이 각각 91%와 83%로 높은 -아계 어미 결합력을 유지했다.[11)]

11) 선행 연구들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삼척 지역은 여러 언어 현상들이 강원도 타 지역과 다른 특성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 모음조화 역시 마찬가지인데 /ㅏ/, /ㅗ/ 환경은 물론, 거의 모든 환경에서 -어계 어미와 결합하는 경향이 강한 평창 등의 지역에 가로막혀 그 북단 지역과 마치 언어섬과 같은 지도가 그려진다. 지도만 보자면 경기도 남부 및 충청북도 지역에서 침범한 -어계 세력이 지역적 특색이 강한 삼척 방언권의 세력에 막혀 해당 지역으로의 편입이 가로막혔고, 저지할 만한 세력이 없는 북쪽 방향으로 점차 세력을

3) 다음절 어간말 /ㅡ/ 환경[12)]

어간말 모음으로 /ㅡ/를 가지는 어간은 음절수에 따라 -아/어계 어미 결합이 다르다. 단음절에서는 모든 지역에서 -어계 어미가 결합하지만 다음절 어간의 경우 지역차가 발생한다. 다음절 어간 중에서도 어두 모음이 /ㅏ, ㅗ/ 인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환경에서는 모두 -어계 어미와 결합하므로 여기에서는 지역차가 발생하는 환경만 살펴보려 한다.



〈그림 3〉 어두 모음 /ㅏ, ㅗ/의 다음절 어간말 /ㅡ/ 뒤 -아계 어미 결합률

그려진 지도의 모습은 전반적으로 어간말 모음 /ㅏ/ 어간의 -아, 어계 어미 결합 양상과 유사하다. 앞서 -어계 어미 세력이 강했던 양양, 평창, 강릉, 영월은 여전히 -어계 어미의 결합 비율이 높다. 원주 정도만 50%로 -아계와 -어계가

확장시켜 나가는 꼴이라 하겠다.

12) 해당 환경에 포함되는 어간은 다음과 같다. '다듬-, 자르-, 짜르(短)-, 짜르(小)-, 다르-, 따르-, 마르-, 마르-, 모르-, 기르-, 뚤르-, 흐르-, 게으르-, 낫-, 잇-, 붓-, 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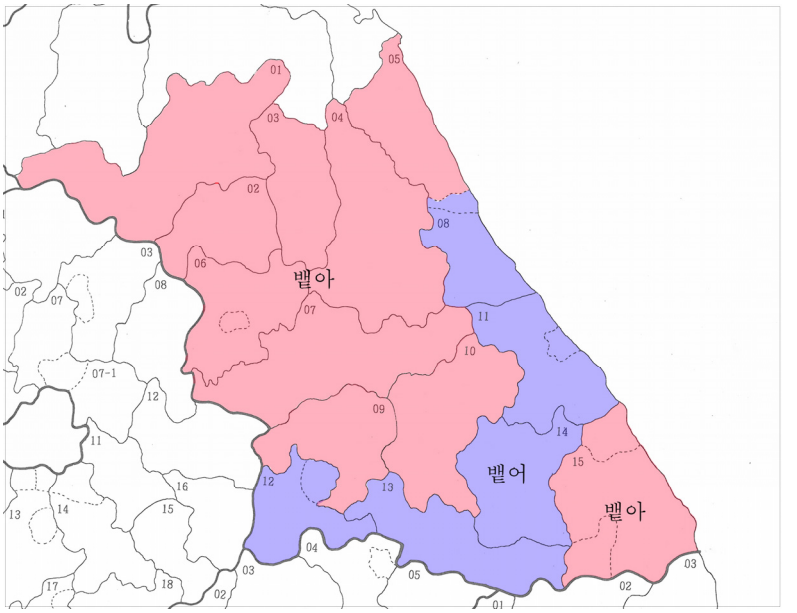
팽팽하게 대립하여 어간말 /ㅏ/ 어미 환경보다 -아계 어미 결합률이 높아진 것이 눈에 띈다.

해당 지역들을 기점으로 멀어질수록 -아계 결합 비율이 높아지는 것 역시 이전 환경과 동일하다. 다만 가장 북단에 위치한 철원과 화천은 예외 없이 -아계 어미와 결합하여 아직 이 지역들에 -어계 어미 세력이 침범하지 못하는 등 전반적으로 어간말 /ㅏ/ 환경보다는 -어계 어미의 확산 속도가 느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불규칙 어간 중 어간말 모음 /ㅡ/를 가지는 환경에 해당하는 것에는 '르' 불규칙과 'ㅅ' 불규칙이 있다. '르' 불규칙 어간들은 대체로 규칙 어간과 차이가 없지만, '모르다'처럼 어두에 모음 'ㅗ'를 가지는 어간은 유일하게 평창만이 -어계 어미와 결합했다. 앞서 살펴봤듯이 평창은 강원도 내에서 -어계 어미 결합력이 가장 두드러지는 지역임이 여기에서도 드러난다.

'ㅅ' 불규칙의 예인 '낫다'는 오직 강릉에서만 -어계 어미와 결합한다. 이 역시 어간말 /ㅏ/ 환경에서의 -어계 어미 세력의 범위만큼 확장되지 못한 결과이다.

4) 어간말 /ㅐ/ 환경



〈그림 4〉 어간 '빨-' 활용 양상

자료집에서 확인할 수 있는 어간말 모음으로 'ㅐ'를 가지는 용언 중 자료로 활용 가능한 폐음절 어간은 '뱉-'과 '맺-' 정도로 수치화하기에는 자료의 수가 너무나 부족하다. 더군다나 '맺-'의 경우 자료집으로는 -아, 어계 결합을 확인할 수 없는 삼척, 영월을 제외한 강원도 전 지역에서 -어계 어미와 결합하여 이미 -아계 어미가 설 자리를 잃은 모습인 데 반해 '뱉-'의 -아, 어계 결합 분포는 앞에서 살펴본 다른 환경에서의 -아, 어계 결합 분포와 모습이 거의 일치하여 어휘별 결합차가 크다.

5) 다음절 어간말 /ㅜ/ 환경[13)]

어간말 /ㅜ/ 환경 어간은 음절수의 영향을 받는다. 단음절 어간에서는 정선과 삼척에서 보이는 극소수의 예들을 제외하면 모든 지역에서 -어계 어미와 결합한다. 정선, 삼척에서 실현되는 -아계 결합형들도 김봉국(2001)의 보고처럼 종결형 어미 결합시 어간말 모음에 상관 없이 -아계 어미를 선택하는 특이한 경향성에 의한 것들을 제외하면 온전한 -아계 결합형은 찾아보기 힘들다.[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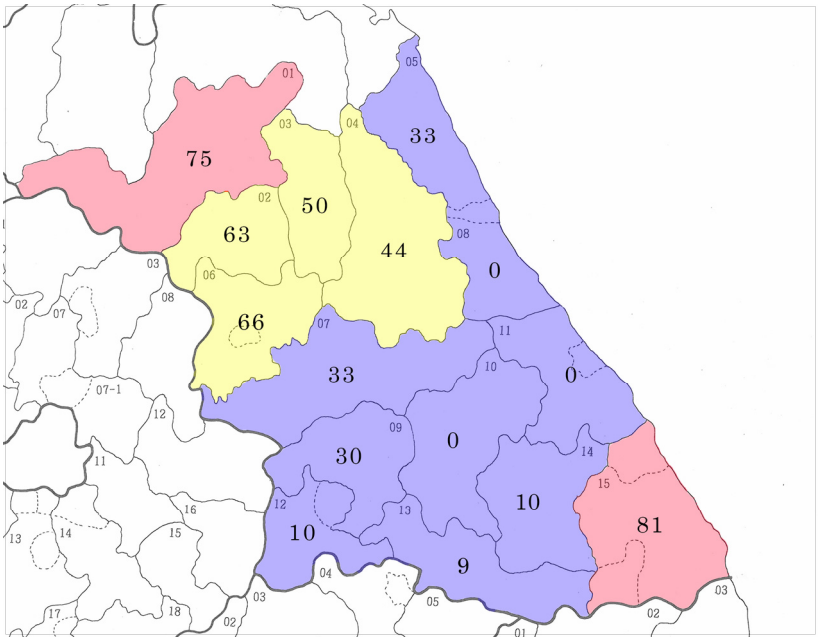
지역차가 나타나는 환경은 다음절 어간일 경우이다. 그 중에서도 어두 음절의 모음으로 /ㅏ, ㅐ/를 가지는 경우만 지역차가 두드러질 뿐 나머지 환경은 정선과 삼척을 제외하면 모두 -어계 어미와 결합한다. 역시나 삼척만 다음절 환경에서 어두 음절 모음과 관계 없이 -아계 어미의 세력이 강하게 남아있는데, 이 영향 때문인지 인접 지역인 정선에서 -아/어계 결합 병존형들이 발견된다(예. 바꽈~바꿔, 뛰와라~뛰워라, 질괐다~질궜다). 자료집의 특성상 병존형 모두 기록하는 일이 그리 많지 않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당시 정선 지역이 해당 환경에서 -아/어계 선택에 있어 혼란을 겪는 과도기라 하겠다.[15)]

---

13) 해당 환경에 포함되는 어간은 다음과 같다. '낮추-, 맞추-, 싸우-, 당구-, 바꾸-, 가두-, 안추-, 따루-, 장구-, 가꾸-, 알구-, 배우-, 재우-, 메우-, 띄우-, 끼우-, 튕구-, 얼구-, 말루-, 질구-'. 어미에 따라 복수로 채집된 토큰은 -아/어계 차이를 보이지 않아 하나의 토큰으로 처리했다.

14) 정선의 '붉아진다', 삼척의 '물아서' 정도인데 이는 종결 어미 앞 -아계 어미의 실현이 영향을 준 드문 예가 아닐까 싶다.

15) 표에서 정선 지역의 10(%)는 모두 병존형의 결과이다. -어계 어미와만 결합하는 어간은



〈그림 5〉 어두 모음 /ㅏ, ㅐ/의 다음절 어간말 /ㅜ/ 뒤 -아계 어미 결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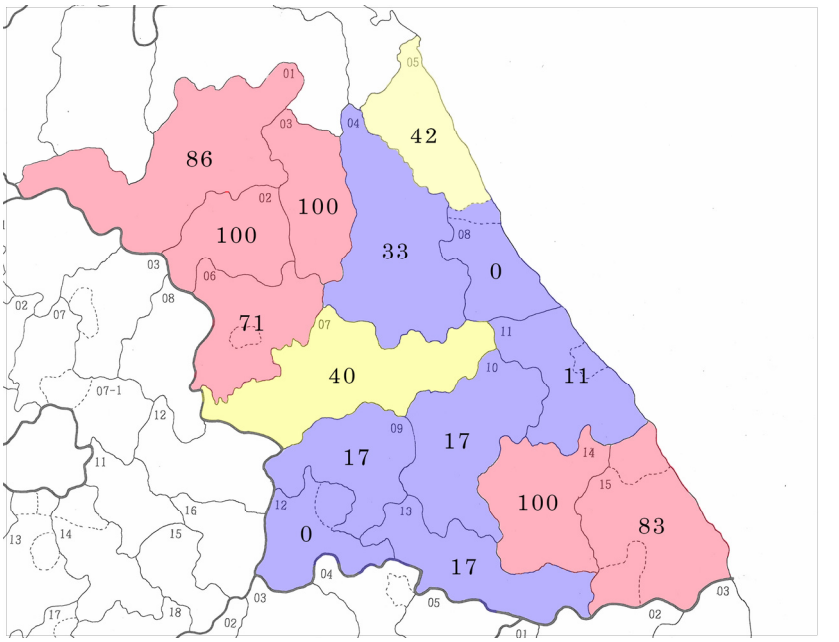
음절초 /ㅏ, ㅐ/ 환경에서 지역차가 발생하는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우리는 이미 앞에서 어간말 모음 /ㅏ/와 /ㅐ/를 가질 때 지역에 따라 다른 선택을 한다는 사실을 살펴보았다. 하지만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예들을 통해 -어계 어미 선택형의 점진적인 확산 양상과 더불어 확산 속도에 대한 실마리도 찾을 수 있을 듯하다.

해당 환경의 모든 어간이 -어계 어미와 결합하는 지역은 양양, 평창, 강릉, 정선 네 지역이다. 이에 더해 -아계 어미 선택이 10% 이하인 횡성과 영월을 포함시키면 결과적으로 삼척을 제외한 강원도 남부 지역들은 -어계 세력이 장악했다고 평해도 무리가 없다. 영동으로는 양양, 영서로는 평창을 기준으로 그 북쪽 지역들 역시 비율이 다를 뿐 -아계 어미 선택보다는 -어계 어미를 선택하는 경향이 강하다.

자료집상 최북단 지역인 철원을 비롯한 인접 몇 지역은 여전히 어느 정도 -아

자료집에 등장하지 않았다.

계 어미 세력이 유지되곤 있지만 이 역시 위태로워 보인다. 앞서 살펴본 어간말 /ㅏ/ 어간의 지도와 비교하면 확연히 -아계 어미 선택 비율이 낮다. 따라서 다음절 어간말 /ㅜ/ 어간 중 어두 모음 /ㅏ/인 환경에서 -어계 어미 결합으로의 변화가 먼저 확산된 이후 어간말 /ㅏ/ 환경이 같은 변화를 겪는 순서를 조심스레 예상한다.[16)]



〈그림 6〉 어두 모음 /ㅏ, ㅐ/의 'ㅂ' 불규칙 어간 뒤 -아계 어미 결합률

'ㅂ' 불규칙 어간 역시 -아/어계 결합 양상의 큰 틀은 다음절 어간말 /ㅜ/ 환경의 경우와 유사하다. 다만 어두 음절 모음으로 /ㅏ, ㅐ/를 가지는 ㅂ 불규칙 어간의 -어계 선택 비율은 동일 환경의 규칙 어간에 비해 조금은 낮게 측정되었

16) 현대 국어에서 -어계 어미의 세력이 -아계를 압도하는 가운데 모든 환경이 상호간의 영향 없이 독자적인 변화를 겪는 중이라는 가설도 가능하다. 다만 동일한 방향성을 가진, 하나의 유형으로 묶을 수 있는 변화가 서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보는 것보다는 서로 일련의 연관 관계를 가진다는 것이 필자의 관점이다. 그렇다면 각 환경이 가지는 복잡성의 차이가 속도차를 불러왔을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 있다.

다. 다시 말해 변화의 속도가 한 발자국 더딘 상황인 것이다.[17)]

특히나 북쪽으로는 화천과 양구, 남쪽으로는 정선의 실현 모습에 눈길을 끈다. 세 지역 모두 어두 모음 /ㅏ, ㅐ/인 'ㅂ' 불규칙 어간들이 100% -아계 어미를 유지했다. 동일 환경의 규칙 어간들과 비교하면 화천과 양구는 타 지역에 비해 -아계 어미 결합 비율이 높긴 하지만 50~60% 정도로 어느 정도 -어계 어미의 침투가 이루어진 상황, 더군다나 정선은 이미 완벽하게 -어계 어미가 세력을 장악한 모습과 대비된다.

세 지역의 공통점은 다음절의 'ㅂ' 불규칙 어간들이 어두 음절 /ㅏ, ㅐ/ 이외의 모음을 가지는 경우에도 종종 -아계 결합형이 등장한다는 점이다(예. 부러와, 서러와, 무수와 등). 이는 정선과 인접한 영월의 소수 어간을 제외하면 강원도 타 지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세 지역만큼은 다음절의 ㅂ 불규칙 어간의 활용에서 어두 음절의 환경에 상관없이 -아계 어미의 세력이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다.[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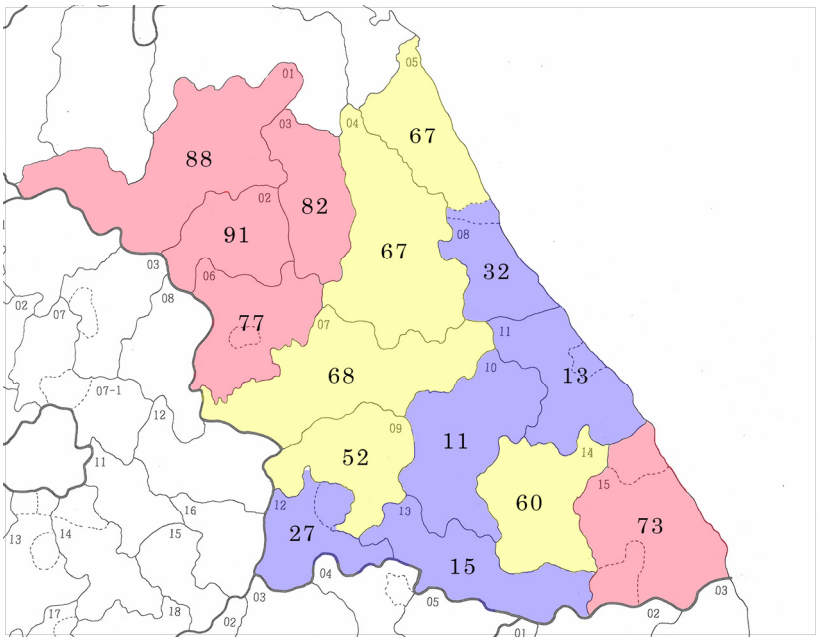
---

17) 이는 강희조(2012)의 보고와는 조금 다른 결과이다. 강희조(2012)에서는 'ㅂ' 불규칙 어간이 규칙 어간보다 변화가 잘 일어난다고 하였다. 환경은 다르지만 '르' 불규칙과 'ㅅ' 불규칙 역시 규칙 환경과 비교하여 변화의 속도가 느리다는 점을 고려하면 강원도 지역에서는 불규칙 어간이 규칙 어간보다 변화의 속도가 느리다는 거친 정의를 내릴 수도 있겠다.

이밖에 강희조(2012)에서는 /ㅗ/보다는 /ㅏ/모음 어간에서, 연결어미보다는 종결어미에서 -아>어의 변화가 먼저 진행된다고 하였다. 강원도 지역의 경우 어간말 모음 환경은 강희조(2012)와 동일한 결과를 보여줬지만, 강원도 남부 지역은 종결 어미로 -아계가 유지되는 경향성을 띠므로 변화의 방향은 같을지라도 과정과 속도는 지역차가 발생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18) 특히 양구와 정선이 두드러진다. 『한국방언자료집』에 따르면 두 지역은 다음절의 ㅂ 불규칙 활용에서 소수의 예를 제외한 거의 모든 활용형들이 -아계 어미와 결합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는 해당 지역이 모음조화 변화 초기 단계에서 다른 지역들과는 다른 방향으로의 단순화를 일으키지 않았을까 의심케 한다. 모음조화 전체 환경을 보더라도 양구는 -아계 결합형 경향이 강하게 남아 있는 지역이다. 단순히 거리 때문에 -어계 결합형의 침투가 늦어진 것이 아니라 개신형 침투의 반발 작용이 일어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듯하다. 다만 양구와 정선 모두 보수형이 개신형을 밀어낼 만큼 강한 세력을 유지할 만한 지역이 아니라는 점에서 결국 -어계로의 변화를 뒤늦게나마 따라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6) 남에서 북으로의 점진적 변화



〈그림 7〉 4.1~4.5 결과 종합

『한국방언자료집』을 통해 살펴본 강원도 지역의 -아/어계 어미 결합 양상은 대체적으로 평창과 강릉, 영월 일대의 남쪽 지역에서 강하게 나타나는 -어계 결합형이 환경에 따라 속도차를 보이며 북진하는 모양새로 해석된다. 자료 수집 당시 -어계 결합 세력은 북으로 인제와 고성 지역까지는 기존 -아계 결합형과 경쟁 단계에 이를 수준에 이르렀지만 그보다 위쪽에 위치한 철원, 화천, 양구 지역은 여전히 기존 -아계 결합형이 굳건히 자리잡은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미 개신형의 북진이 진행되고 있는바, 이후 해당 지역들 역시 -어계 결합형이 점차 자리를 잡을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하다.

만약 현재 강원도 북쪽 지역에서 기존 -아계 결합형 자리에 -어계 결합형이 실현되고 있다면 강원도 지역의 -아/어계 결합 양상이 남에서 시작된 -어계형의 북진으로 인해 점진적으로 변화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강한 근거가 될 것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필자가 2015년 화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지역어

조사 자료를 토대로 현재 화천 지역의 -아/어계 어미 결합 양상을 살펴본 결과 예상한 바와 같이 과거에 비해 현저하게 많은 양의 -어계 결합형을 찾을 수 있었다.[19)]

어간말 /ㅡ/ 환경의 다음절 어간 중 어두 음절 모음이 /ㅏ, ㅗ/인 환경의 경우 『한국방언자료집』에서는 화천 지역에서 단 하나의 -어계 결합형도 나타나지 않았던 반면, 현재는 '통틀-, 다듬-, 만들-'등 다수의 어간들이 -어계 어미와 결합한다. 또한 '바르-'에 대해 '발라/발러'가 모두 확인되어 현재 화천 지역에서 해당 환경에서 변이가 진행 중임을 짐작케 한다.

이미 『한국방언자료집』 당시에도 -어계 어미 결합형의 비율이 제법 높게 나타났던 어두 모음 /ㅏ, ㅐ/를 가지는 다음절 어간말 /ㅜ/ 어간은 앞선 환경에서보다 더욱 많이 변화가 진전된 모습이다. 예가 많지 않지만 해당 환경의 모든 어간이 -어계 어미와 결합한다. 이와 더불어 원래 -아계 어미 결합을 강하게 유지하던 'ㅂ' 불규칙 환경에서조차 '반가워'처럼 -어계 어미 결합형이 등장했다.

애초에 '-아/어'계 결합 양상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 수집이 아니었기에 채집된 자료의 수가 적어 수치를 활용한 구체적인 변화의 정도를 확인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료집의 상황과 비교했을 때 현재 화천 지역이 -아/어계 어미 선택에 있어 과거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인다는 사실은 확인할 수 있었다.

5. 마치며

이 글에서는 어간 뒤 -아/어계 어미 선택 양상을 토대로 강원도 지역의 언어

19) 해당 조사는 지역어 조사 보완 작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으로, 조사는 2015년 8월 25일부터 약 일주일 동안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사창리에서 이루어졌다. 자료집에 채집된 화천 지역 자료는 1981년 조사된 자료이다. 당시 제보자의 나이는 68세였다. 필자가 채집한 자료와 비교하면 시간으로는 약 34년의 시간차, 필자의 제보자가 78세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24년의 세대차를 둔 자료이므로 필자의 자료는 자료집보다 한 세대가 지난 뒤의 자료로 활용되기에 충분해 보인다.

변화 과정과 방향을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는 삼척과 정선을 제외한 강원도 남부 지역에서 -어계 어미가 결합하는 변화가 일어났고, 이후 개신형의 확산으로 점차 북쪽 지역까지 -어계 결합형이 세를 뻗어간 것으로 해석하였다.

현대 국어에서 -어계 어미가 점차 -아계 어미의 자리를 대체해 나간다는 사실은 새로울 것이 없는 사실이다. 다만 본 연구는 대체로 비슷한 시기에 수집된 공시적 자료를 활용하여 점진적인 변화를 확인했다는 점에 소박한 의의를 둘 수 있을 듯하다. 어휘확산가설에 따라 언어 변화가 어휘를 통해 점진적으로 진행된다고 가정하고 자료를 살펴본 결과 한 지역 내에서 동일 환경임에도 어휘에 따라 -아/어계 어미 선택이 다르고, 다시 지역에 따라 그 비율 역시 달라졌다. 이는 곧 해당 지역에서 어휘를 기반으로 언어 변화가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중임을 보여줌과 동시에 비율을 통해 변화의 방향과 속도를 점쳐볼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였다.

자료집을 통해 확인한 변화는 현재 조사 자료를 통해 소박하게나마 다시 한 번 검증되었다. 비록 자료의 수는 적지만 자료집에서 -아계 결합형이 가장 잘 보존되었던 화천 지역이 현재 -어계 결합형을 선택하는 쪽으로 확연히 변화했다는 사실은 우리가 가정했던 강원도 지역의 남에서 북으로의 변화 방향을 입증해 주었다.

본고에서 사용한 자료가 모음조화의 확인을 목적으로 조사된 것이 아님으로 인해 어휘 토큰의 수가 부족한 것은 수치를 기반으로 하는 본고의 연구 방식에 있어 큰 약점이다. 다만 군 단위가 아닌 도 단위의 자료 수집이 순수 개인의 자료 채취만으로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변명 삼아 이번 글에서는 최대한 기존 자료를 활용하여 기존에 살펴보지 않았던 강원도 전체의 모음조화 양상을 살펴보았다는 데에 작은 의의를 두고자 한다.

주제어 : 모음조화, 강원도 방언, 어휘확산이론, 네트워크 분석, 진행 중인 변화

투고일(2019. 11. 22), 심사시작일(2019. 12. 13), 심사완료일(2020. 1. 6)

<참고문헌>

강희조(2016), 「한국어 용언활용에서 보이는 모음조화의 변이와 변화: 현장시와 실제시 연구」, 『언어학』 76.

김봉국(2001), 「강릉, 삼척 지역어 '-어/-아'계 어미의 교체와 음운현상」, 『어문연구』 29-2.

_____(2002), 『강원도 남부지역 방언의 음운론』,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_____(2007), 「강원도 태백 지역의 언어: 모음과 관련된 음운현상」, 『한민족문화연구』 21.

김아름(2011), 「모음조화의 변화 양상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영찬(2004), 「어휘확산이론의 변화와 발전」, 『중국어문학』 44.

김옥영(1998), 「강릉 방언의 음운론적 연구」, 강릉대학교 석사학위논문.

_____(2012), 「강릉방언 모음 실현의 특징과 원리」, 『방언학』 15.

_____(2014), 「강원도 지역어 연구사」, 『국어국문학』 166.

김유겸(2012), 「인제 지역어의 음운론」,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한별(2011), 「순경음 'ㅂ'에 대한 통시적 연구」,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노명희(2005), 「강원도 영서 지역의 언어 분화: 화천, 춘천, 홍천, 원천, 횡성, 평창을 중심으로」, 『새국어교육』 69.

노채환(2007), 「한국어 모음조화의 지배음운론적 연구: 용언어간과 어미 결합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선우(2016), 「한국어 모음조화의 약화 현상에 대한 정보이론 기반 분석」, 『음성, 음운, 형태론 연구』 22.

박용대(2011), 「강원도 고성지역어의 공시음운론」,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유필재(2000), 「서울방언 용언 자음어간의 형태음운론」, 『국어학』 35.

윤혜영(2001), 「홍천 지역어의 음운론적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손웅일(2006), 「정선방언의 음운론적 연구」, 강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병근 · 김봉국(2002), 「강원도 정선 지역의 언어 연구」, 『관악어문연구』 27.

이익섭(1979), 「강원도 영서지방의 언어분화」, 『진단학보』 48.

_____(1987), 「강원도 방언의 특징과 그 연구」, 『국어생활』 10.

이현주(2017), 「충남방언의 모음조화에 대한 소고」, 『한국방언학회 학술대회 발표집』.

임미숙(1993), 「평창 지역어의 음운론적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정성훈(2016), 「네트워크 분석과 하위 방언 구획 연구」, 『한글』 311.

_____(2017), 「서남방언의 하위방언구획과 네트워크 분석」, 『언어학』 77.

_____(2018),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강원도 하위방언구획 연구」, 『우리말연구』 55.

최영미(2016), 「강원방언 유기음화의 지리적 변이」, 『한말연구』 41.

_____(2017),「강원방언 성조의 인지에 대한 방언차 연구」,『한말연구』46.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1990),『한국방언자료집 Ⅱ』, 한국정신문화연구원.
Bauer, Laurie.(2008), “Lenition Revisited”, *Journal of Linguistics* 44-3, Cambridge University Press.
Bybee, Joan.(2007), *Frequency of Use and the Organization of Languag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Chambers J. K. and Trudgill, Peter.(1980), *Dialectolog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Labov, William.(1981), “Linguistic Society of America”, *Language* 57-2, Linguistic Society of America.
Trudgill, Peter.(1986), *Dialects in Contact*, Oxford: Basil Blackwell.
Wang, William.(1969), “Competing Changes as a Cause of Residue”, *Language* 45-1, Linguistic Society of America.

〈Abstract〉

A Study on Vowel Harmony of Gangwondo
- Progress and direction of ongoing change -

Kim Youkeum *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lies in examining the vowel harmony of Gangwondo in terms of ongoing change. Through this, we tried to identify the connection of the subregions in Gangwon-do and the direction of the change process. In other words, the study is an attempt to discuss ongoing language changes through a synchronic approach.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language change progresses gradually through a word like the hypothesis of lexical diffusion, the data showed that although it is in the same environment, the choice of -a/ə ending was different depending on word within one region, and the ratio also varied depending on the region. The study took these results as a sign that language change is progressing gradually based on word, while at the same time it can predict the direction and speed of change through the ratio of choices.

In chapter 4, I identifies the situation of vowel harmony in Gangwondo. The data used in this chapter are words contained in the 『한국방언자료집』. The choices of vowel harmony are divided according to the environment such as ending vowel of word stem or words with an irregular conjugation. As a result, a change in the combination of -ə ending took place first in southern Gangwondo, except for Samcheok and Jeongseon. After that time, the combined -ə ending has gradually grown to the north due to the diffusion of the innovation forms.

I was able to confirm from a recent survey of Hwacheon that the power of the combined -ə ending is more extensive than ever before. Therefore, it has been confirmed that it is reasonable to set the direction of change from south to north.

This study was described by a single phenomenon, the vowel harmony. However,

* Ph. D. Course Completion,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 Literature, Seoul National University.

vowel harmony is a phenomenon that is currently ongoing changes in Gangwondo. So vowel harmony is an important phonetic phenomenon that can identify where the key areas driving change are.

I suggested the possibility that Pyeongchang would be the one in charge of key area in Gangwondo. I could also confirm once again that the dialect dicision of Gangwondo could be divided into the South and the North.

Key Words : Vowel Harmony, Gangwondo Dialect, Lexical Diffusion, Network Analysis, Ongoing Change